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어린이성경학교, 수련회, 단기선교, 농어촌전도활동 등 여름행사 및 사역 한창 막바지에 6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계속 이어져

계속적으로 30도를 훨씬 넘기는 여름의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연일 전력 수요의 최고치를 갱신하는 보도가 나오고, 밤마다 열대야가 계속되어 잠 못 이루는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를 이야기하며 걱정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장마가 끝나면서 찌기 시작한 더위는 언제 끝이 날는지 모를 지경으로 매일매일이 무더위의 연속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여름행사이다. 여름행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참으로 중요하고 힘있는 사역들이 더위하고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5, 6일 새가정부의 수련회를 막을 올린 교회의 여름 행사 및 사역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그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미 끝난 부서와 팀들은 감동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준비하며 시작하는 부서는 이 무더위에 연일 교회당에 모여 비집땀을 흘리며 준비에 여념이 없다. 또한 이 시간에도 사역 현장에서 연일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한 채로 수고하고 있기도 하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학령전 부서 및 초등학교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등부의 여름수련회는 7월 말로 모두 끝났다.

금년도 이들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특징은 서로 연합하여 한 점이었다. 현대사회가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성향으로 흐름에 따라 또한 그것이 앞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는 장소, 관리 등의 이유로 세분화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특별한 기회들에는 서로 연합하여 함으로 선후배 간을 익히고 다른 부서의 교사들도 익히고 연합의 의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유년, 초등, 소년부서는 함께 시작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



▲ 중등1, 2부 여름수련회의 한때.

은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진행했다. 중등1, 2부는 아예 처음부터 연합의 분위기로 시작했다. 반원성도 중등1, 2학년들을 섞어서 했고 모든 프로그램을 연합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런 노력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 사회가 우려하는 편을 교회 내에서 많이 해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학교 여름행사는 지도부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교회학교 각 부서가 집중적인 신앙훈련을 통한 신앙 성장의 기회로 자리잡아 왔다. 따라서 주일에 만도이는 각 부서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8월 7-9일에 고등부 수련회가 양수리 수양관에서, 17-19일에 청년2부 수련회가 갈릴리움에서, 14, 15일에 중등기도원에서 실시하게 될 영어교육부 수련회가 남아 있다. 특히 고등부는 수련회에 학부모를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순서도 준비하고 있다.

찬양대수련회

찬양대의 여름수련회도 각 찬양대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 각 연맹회에 포함된 찬양대가 예제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여름수련회는 각별

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 영적 훈련과 전교, 집중적인 연습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찬양대수련회의 특징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점이다.

8월 6-8일에 주문진 가족호텔에서 가브리엘찬양대 수련회, 14-16일에 청수연수원에서의 임마누엘찬양대 수련회, 14, 15일 충현기도원에서의 할렐루야찬양대 수련회, 14-16일에 고양유스호스텔에서의 아멘찬양대 수련회, 14, 15일 구세군수양관에서 실시하는 시온찬양대 수련회, 15일 남성중앙단 수련회가 남아 있다.

단기선교 사역

대학 청년들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단기선교 사역을 금년에는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면서 전 교인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지와 그곳에서의 힘든 환경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이 일에 많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일이다. 금년도도 홍콩(7월 12-19일)은 이미 다녀와서 감동 어린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중이다. 또한 8월 15-23일에는 터키에서 사역하게 된다.

젊은이들의 단기선교 사역은 다녔던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에게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안락한 자에 대한 원인의 정은 열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교회 내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사역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농어촌 전도 및 봉사 활동

농어촌 전도활동은 금년에 교구에서 7개팀, 대학부 8개팀, 청년1부 12개팀 총 27개 팀이 농촌 및 낙도, 오지 등으로 나가 전도활동 및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까지 이미 교구의 6개팀을 비롯한 14팀이 사역을 끝냈고 이제 3교구와 대학부와 청년1부의 낙도와 오지의 13개팀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늘 안락한 사람들에게 대한 전도의 마음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이들을 거도와 물질로 후원할 때 교회 전체가 전도의 열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앞으로 8월 5-7일에 실시되는 3교구와 청년1부에서 실시하는 4-7일의 낙도 5개팀과 12-15일의 오지 2개팀과 대학부에서 실시하는 낙도 및 농촌 5개팀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춘천소년원 수련회 인도, 대학부 학생이 중심이 된 병원전도팀의 전도활동 등 크고 작은,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여름 기간 동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여름이 다가고 가면 다시 성숙해진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과 교회와 온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보게 될 것이다.

직원모집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물된 교회를 살기며 함께 일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이 돈독한 만 23세 미만의 여성
2. 근무직종
예사부직 ○ 평
3. 제출서류
① 이력서(사진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서류 제출 및 문의
사무국(552-8330) 교환 402)

97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교육 일정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3일 (주일)	1교시 15:00~15:50	개독교개교 (양국명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자?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교 (김재철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행준 목사)	교육관 307호		
8월 1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한근수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한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17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예문단)			

97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 성적표 제출 바랍니다

1997년도 1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은 8월 3일(오늘)까지 1학기 성적표를 교육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학기 장학금 지급 심사를 위한 것이기에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2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심판을 받게 된 선민의 죄(2)

(이사야 3:8-26)

지난 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백성들은 오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눈을 저르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 안색에는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동과 같이 음란하고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와 방백들은 자신들이 잡은 세력으로 백성들을 약탈했으며 부녀자들은 교만하고 음탕하며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회개의 기회도 여러번 주시면서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칼을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못돼먹은 것들아! 너희가 그런다고 누가 잘났다고 할 것 같으냐?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 하시며 일곱 가지로 심판하시겠다고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

1)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십니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사 3:17)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말의 뜻은 이렇게 예쁘게 장신구로 단장하여 뽐내던 여자들이 남편은 원수의 칼날에 죽고 지금은 남편을 죽인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이란 혹사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구덩이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데, 먼지가 머리에 앉고 또 앉았지만 머리를 한 번 빗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혹사를 당하고 배를 맞으면 일을 하느라고 머리에 먼지와 티끌이 앉고 그 위에 땅이 흘러서 땅과 먼지와 때가 범벅이 되어 딱지가 앉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딱지가 앉은 머리에 현대가 나서 진물이 질질 흐르니 딱지 위에 딱지가 앉습니다. “이 여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차체하고 예 모양으로 살 것 같으냐. 너희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 하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사 3:17)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니 스커트나 비치는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곳을 뽐내려 드러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추제하여 옷을 벗을, 천 벌을 걸어 놓았으나 포로로 잡혀가다 그 옷들은 누가 갖다 입었는데도 모르고 이제는 무명 차마 하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입고 있는 단벌옷에

때가 묻고 꿰져서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는 말은 꿰진 누더기옷을 걸쳤다는 말입니다. 옷을 열 벌, 수백 벌을 했었으나 지금은 그들의 몸을 가릴 옷이 없어서 누더기를 걸쳤다는 말입니다.

3)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걸옷과 꼭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가락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라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사 3:18-24)

썩은 냄새가 왜 납니까? 두 달, 석 달을 쓰레기 처리장에 끌려 다니면서 배를 맞으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강제 노동을 해도 목욕 한 번 못했으니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열 달이나 이를 닦지 못했으니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얼굴을 씻고 다듬고 몸에는 향수를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향(음란한 약)을 담은 향합을 가지고 다니던 여자들에게 ‘이제는 썩어진 냄새나 실컷 나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4) 노끈이 띠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사 3:24)

허리에 띠는 밴드도 열 가지, 백 가지, 희한한 것들을 묶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으니까 열 사람, 스무 사람 열을 지어 포승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가슴에 포로의 번호를 달고 열을 지어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강제 노동에 끌려 다니기 위하여 결박을 지은 노끈이 훌륭한 띠인 밴드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란 포로의 신세로 끌려 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5) 대머리가 술한 머리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대머리가 술한 머리털을 대신하고”(사 3:24)

머리칼이 모두 빠졌습니다. 유대인은 한국 사람처럼 머리에 예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머리에 이고 다녔는데 노동을 하는데 머리에 현대가 나다 계속 이고서 노동을 하다 보니,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에겐 세대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머리입니다.

육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고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밖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와 여러분의 여생이 얼마인지 몰라도 정신을 차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그런데 머리칼이 다 빠져 대머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6)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사 3:24)

‘화려한 옷’은 잔치를 한다 혹은 호화롭다는 뜻이고, ‘굵은 배옷’은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유다의 부녀들을 심판하시니 무도복을 입고 춤추고 놀던 생활이 가슴치고 통곡하는 생활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7)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사 3:24)

이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서운 내용입니다.

‘자자한 흔적’이란 도장이 찍힌 얼굴을 말합니다.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을 때에는 쇠로 도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불에 시뻘경게 달구어 ‘이것은 누구의 종이다’ 하고 이마에 화인(火印)을 찍습니다. 어떻게 되면 도장을 가져갈 곳이 없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예쁘던 얼굴에 쇠도장을 찍혔으니 이것에 뭘하겠습니까. 이러니 그 삶이 죽을 뿐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자들에 사체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에 한 달 식비야 얼마 되나요. 사체품을 사는 데에 살값의 몇십 배를 지출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합니다.

“꼭새넌 그제 돈 애기만 해!” 그 래다가 하나님께 살권을 받아 원수에게

결박을 당하여 끌려가면 돈내라는 말을 못 듣게 되는 것이 한입니다. 지금 돈이 있을 때에 선한 일에 헌금하자는 말을 듣는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구리굴에 결박을 당하여 끌려가면 선한 일을 위하여 돈을 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기죽 채찍이 등에 맴고랑을 만들 뿐입니다.

이사야가 한 이 말이 지나칩니까. 이 사야가 이 말을 한지 10년이 못되어 북조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함으로써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아, 충현교회의 성도들이여,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날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예배당을 짓겠는데 헌금하자고 할 때에 참여하지 않다가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닥쳐오면 돈을 5천만 원, 1억, 3억, 5억, 10억을 쌓아 놓았어도 일점도 나가는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돈을 내라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뽐내던 20가지 사치품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로 심판이 왔습니다. 정수리에 딱지가 붙고, 미니 스커트를 안 입었어도 몸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가학한 날이 옵니다. 썩은 냄새가 향수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아름다운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예쁘던 얼굴에 쇠도장이 찍힙니다.

육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고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밖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와 여러분의 여생이 얼마인지 몰라도 정신을 차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홍콩단기선교사역을 다녀와서 ◆

13억 중국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정은주

(유년부 교사, 대학부)

7월 12일 오전 6시 김창인 목사님 내외분과 노광현 장로님을 모시고 출정식을 마친 우리 대원 16명은 담대하게 홍콩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박상준 장로님을 단장으로, 김희수 목사님을 지도목사로 하여 구성된 홍콩 단기 선교팀은 약 한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기도와 광둥어 찬양 연습과 드라마와 율동을 통하여 팀 화합이 매우 잘 된 상태였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숨쉬기 힘들 정도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은태 선교사님과 함께 숙소에서 도착예배를 드린 후 곧장 우리는 72명을 수용하고 있는 양로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도사역을 하였습니다. 김희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우두각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여러교회 집회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여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홍콩 땅을 밟으면서 침묵 기도를 외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땅 위에 있을 줄로 확신했습니다. 거리에는 새빨간 오성홍기, 자주 마추지는 군인들, 건물과 집에는 수많은 부적과 불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곳은 선교하기가 힘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임을 느꼈습니다.

13일 주일, 새벽 기도회로 미션홈에서 홍콩에서의 첫 아침을 시작한 우리는 김은태 선교사님이 시무하고 계시는 우두각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오전 9시 어린이예배때에 정연희 전

도사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15명의 현지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과 함께 찬양하던 맑은 영혼의 목소리에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1시 이른예배때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던 교인들은 비록 26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믿음의 형제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우두각교회를 통해서 중국 선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윤용규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홍콩충현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린 주일 저녁 찬양예배에 참석하여 우리가 준비한 드라마와 찬양과 율동으로 그곳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14일 아침에는 우두각교회 근처에 있는 영세민아파트 620세대에 2인 1조로 전도사역을 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정문 안에는 어김없이 부적과 불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인종으로 사람을 불러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 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 침사추이(Tsim Sha Tsui) 지하철역 앞에서 즉석 찬양을 하였는데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무섭게 내려도 우리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소나기가 더운 열기를 식혀 주는 성령의 단비같이 느껴졌고 한마음이 되어 찬양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여 이동 중에도 말씀 증거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고 홍콩 이공대학에서 전도할 때에는 대학생 2명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14-15일 저녁에는 우두각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15일에는 김희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한 8명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그 중에 두 분의 형제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그릇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믿기로 결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6일에는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기도로서 준비해 오신 어린이 전도 집회를 가까운 소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소나기가 간간히 내림에도 130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석하여 '부자와 나사로' 인형극과 찬양과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 통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로 32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 광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광주신학원 졸업생 파송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에 단장 박상준 장로님께서 대표로 축하인사를 하시고 헌금과 기념타올 60장을 증정하고 책과 깃발을 기념으로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준비해 간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성찬식을 나누며 중국 대륙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가정교회인 대마점교회를 방문하여 중국 교회의 산 증인이신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종교 탄압으로 인하여 21년간의 옥고를 치르시면서도 교회를 지킨 결과 400명의 교인이

2000명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 후원을 당부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로 인해 중국 선교를 위한 홍콩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면서 우리 단기 선교단 각자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은혜 충만하였고 특히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함께 체험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역의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선교사님 내외분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가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홍콩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은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두각교회가 큰 부흥과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단기 선교팀도 선교 사역의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전심 투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되겠다고 결심한 40명의 형제 자매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길 기원하면서 우리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 농촌전도활동을 다녀와서 ※

'어서 돌아오오!'

민지 않는 자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 배워

이신동

(집사)

첫째날 부흥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특송으로 찬송가 317장(어서 돌아오오)을 부를 때 나는 어느덧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촌형님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날 부흥회 시간에 OMR필름을 잡아 끼우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축조 전도를 한 백경새남이 "집사님! 큰애매니까세 호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예



게 웬일입니까. 절에 다니며 땀 흘려서 돈에 매여 있어서 동태 어른들과 함께 화개산 것이었습니다. 순간, 만감에 교착하고 나 자신에 부끄러워

제게 시작했습니다.

연간적인 생각으로만 결론짓고 큰애매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촌형님들과 조카들만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릇이 작아 하나님의 생각을 펴지 못하리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일들이 생각납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부흥회와 성경학교 시간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증거해 주시며 병든 자들을 위해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던 김재철 목사님,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의료전도를 하시는 전도위원회 김경철 장로님과 의료전도대원들, 축조전도를 하시면서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써 전도하시던 전도대원들과 육의 양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봉사대원들, 인형극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셨고 돌아올 때 차장박에서 떠날 줄 모르고 "내일 계속면 안돼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용주교회에 출석하지도 않는 주만애 무더운 날씨에 수고한다고 사탕을 베푸시던 그 정성어린 손길.

우리는 많은 분들의 기도과 관심과 헌금과 격려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하는 일에 모든 대원이 열심히 참여하여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지 교인들의 눈물과 환송을 뒤로 하고 백찬 개성을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취재수첩

장년2부 성경퀴즈대회

장년2부에서는 지난 7월 27일(주일) 성경퀴즈대회를 열었다.

소신지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 퀴즈대회였는데,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 중에서 80개의 예상 문제를 알려준 후 이날 반을 5개조로 나누어 1조부터 하나씩 돌아가면서 성경퀴즈를 풀었다. 퀴즈의 답을 아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표했고 맞춘 사람들은 그 조의 몇몇 거수 요원들이 기록하여 많이 맞춘 사람에게 8월 3일 상상을 한다.



청년2부 성극 공연



지난 7월 27일(주일) 청년2부에서는 성극 발표회가 있었다. 이것은 청년2부 30대 미혼남녀들의 모임인 살롬반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극은 점술이나 촌지 등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성경과 비교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고 숲속들의 동물들을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나타내었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제작사진첩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설립 마흔다섯 돌이 되는 1998년에 새로운 제작사진첩을 펴내려고 합니다. 제작에서는 단정한 차림으로 제 날짜에 찍으셔서 보다 알찬 사진첩을 만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1997년 6월 22일 ~ 12월 31일
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찍는 교구 / 1997년 8월 3일 : 7교구
- 찍을 사람 /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 ※ 8월 6일(수)~31(주일)에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신앙 공동생활 통해 사랑 나눠

김명화
(유년부 교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자’라는 표어 아래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는 시작되었다. 70여명의 교사와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1박 2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시간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드리며 공동체 생활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배우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가기를 소망하였다.

찬양과 율동시간을 통하여서는 찬송가 168장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271장의 ‘익은 곡식 거둔 자가’ 등 은혜의 찬송들이 힘차게 드리지면서 어린이들이 새 힘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는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1박 2일의 기간 동안에 불충분한 수면(?)에도 불구하고 그 힘찬 찬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인도하심에 놀라움을 느꼈다.

어린이들은 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고 기대를 하게 되지만 때로는 프로그램에 따라 쫓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평소 주일에 갖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 성경학교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 유년부는 주일 1, 2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반이면서도



얼굴을 서로 모르고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 이번 합숙훈련을 통해 친해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

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며 귀신 애기 해달라는 그들에

게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귀신이 쫓겨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즐겨하면 하나님(성령)께서 근심하신다” 하고 달래면서 찬송가와 자장가를 불러 주며 주님의 평안을 구하

부서 탐방 / 교정전도회

전국의 교도소 돌며 복음과 함께 주님의 사랑 전파

“자 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히 13:3)라는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하는 교정전도회는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원의 재소자와 출소자에 대한 복음 전도와 구제 및 회원간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교정전도회는 이 경우 장로가 회장을, 윤삼중 목사가 지도를 맡고 있다. 부서로는 전도부, 홍보부, 봉사부, 구제부, 전양부, 친교부, 차양부, 상담부가 있고 현재 회원수는 약 400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교도소는 춘천소년원, 춘천교도소, 수원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구소년분류심사원, 천안소년교도소, 순천교도소, 광주소년원, 청송제2교도소, 전주교도소, 장호원군교도소, 아들의 집 이렇게 12곳이라 한다. 이곳들을 방문하는 회수가 매주 1회이나, 매월 1, 2회로 각기 다른데 이것은 교도소나 소년원의 일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교도소를 방문할 때 교정전도회에서 나가는 인원은 3~5명 정도이고 각각의 제소자 참여 인원은 곳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명 정도이다. 이때는 총현의 만나나 기타 교제를 가지고 성경공부를 한다. 그리고 전도집회는 그곳에서 특별한 요청이나 교정전도회의 계획에 찬양대까지 20~40명 정도가 방문한다. 무의탁자와 자매 결연을 맺어 영치금을 지원한 다거나 정기적으로 기독교 서적을 보내주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갖는다.

제소자들 중에는 이런 만남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안타깝지만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독방을 쓰는 제소자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잘못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잘 양육하면 올바르게 신앙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정전도회의 올해 전도집회 계획은 이러하다. 4월에는 청송제2교도소, 7월에는 공주교도소와 수원교도소를 다녀왔고, 8월에는 4일부터 8일까지 춘천소년원에서 여름 성경학교

를 가질 것이고, 9월에는 수원교도소에서 수요집회를, 10월에는 수원교도소 재소자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회를 갖고 또 천안교도소를, 11월에는 장호원군교도소에 갈 예정이라 한다.

특히 8월에 있을 춘천소년원의 여름 성경학교의 교사를 모집하기도 했다. 매년 우리 교회 교역자가 주강사가 되어 실시해 오면서도 교사들은 여러 교회 자원 봉사자들로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회원들로 구성하여 실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서울 근교의 교도소나 소년원에는 많은 교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교정전도회는 더욱더 멀리 있는 교도소나 소년원에도 말씀을 전했다면 좋겠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활동으로 제소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교회 차원에서보다 회원들의 정성 어린 마음으로 낸 회비로 구제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교정전도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매주나 매월 시간을 선택해 전도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회비 지원으로,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도로 활동할 수 있다. 우리가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만 보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교정전도회 제공)

던 시간들이었다.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었겠지만 어린이들이 잘 참고 따라 준 일이 고마웠다. 어린이들 중에 몸이 원래 불편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습들도 사랑스러웠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주의 일에 협조해 주신 가정들과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기도와 여러 부문에 수고하신 장로님, 부감님, 교사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이 기간중에 어린이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와 민족 위에 또한 믿음의 가정들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시 25:12, 13)